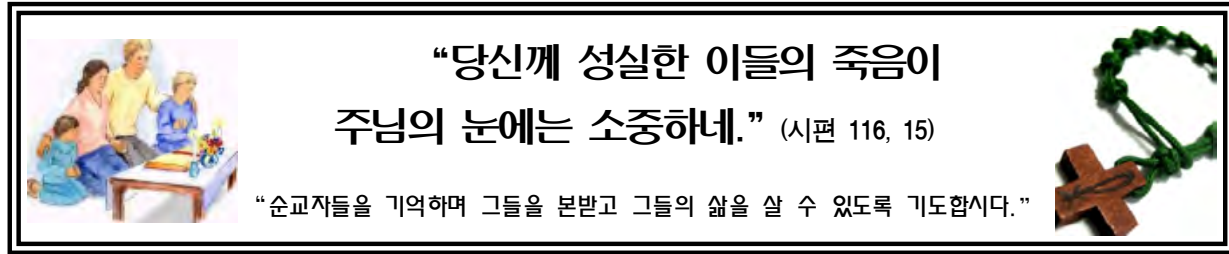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 9월 기도지향

• 주영길(토마스) 신부님 - 제 5대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

■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신자들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놓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순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 오마하 한인성당과 친교의 날

오마하 한인성당과의 **친교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오마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하 공동체가 정성스럽게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시오.

- 친교의 날 : 9월 16일(주일), 본당 출발 8시
- 신 청 : 문석찬 요셉(행사분과장) 및 행사분과원

■ 10월 구역미사 안내

새로 부임하신 주임신부님과 공동체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구역분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구역미사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시고, 되도록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시,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 추석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우리 민족 교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조상님, 부모, 가족, 친척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감사와 위령미사를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봉헌은 미리 **준비된 봉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30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김주연 세실리아 자매님의 모친(조순애 여사) 부고가 있었습니다. 9/13(목) 오후 7시 30분, 덕에서 공동체의 연도와 장례미사 봉헌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토요일(9/15), Lawn Care Service를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오마하 야외 미사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다음주일	안광민(제 입 스)	정준구(파비아노)
	안광희(크리스토퍼)	정병훈(보니파시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다음주일	김주연(세실리아)	홍순익(마르띠노)
	박혜정(카타리나)	최은미(아 네 스)

■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다음주일	문문주(엘리사벳), 최은미(아네스), 배복선(한나)

■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9월 9일>
- 미사참례 : 86명
- 주일헌금 : \$355
- 교 무 금 : \$298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청하면서 정성을 다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진무영

인천교구,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소재.

조선 시대 해상경비 임무를 맡았던 군영이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지이기도 한 진무영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연구 결과 현 강화 본당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1866년 병인박해 때 최인서, 장치선, 박 서방, 조 서방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강화 본당은 2004년 성당 구내에 이들 네 순교자를 기념하는 야외제대와 안내판 등을 마련하여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성당 옆에는 많은 교우들이 고초를 겪은 강화 고려궁지가 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이사 50,5-9 <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



나는 거닐리 - 라 주님 앞 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리 - 라.

- 주님을 나는 사랑하노라. 당신께서는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고 내가 당신을 부르던 그날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셨음이다. ◎
- 죽음의 울가미가 나를 에우고 지옥의 울무가 나를 덮쳐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었노라. 나는 당신 이름 부르며 빌었었노라. 주님 이 목숨 살려 주소서 하고. ◎
-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다정도 하시어라. 우리들의 하느님께서는 인자도 하시어라. 순진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니 가엾던 이 몸을 살려 주셨도다. ◎
- 죽을세라 이 목숨 건지셨도다. 울세라 이 눈물 지키셨도다. 넘어질세라 이 발을 지키셨도다. 나는 거닐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리라. ◎

제 2 독서 : 야고 2,14-18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 음 : 마르 8,27-35 <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

말씀의 이삭

“그들만의 하느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 질문하십니다. 첫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혹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예언자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초기 신앙인들이 그분에 대해 믿던 바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전기와 같이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던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초기 신앙인들의 믿음이 가미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시면서, 당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배척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기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은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영광스럽게 군림하는 메시아, 강대국이 되겠다는 이스라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겪은 후에 발생하였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복음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상(像)을 근본적으로 수정합니다.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는 영광스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인류는 하느님을 말하면서 자기 욕망의 성취를 항상 꿈꾸었습니다. 인간을 성공하게 해 주고, 부귀와 영화를 주는 하느님입니다. 인류는 비를 오게 하기 위해 하늘에 빌고, 병들었을 때는 신에게 빌어서 병을 고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리스도 신앙은 전혀 다른 하느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배워서 그분의 일을 내가 실천하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배워 실천합니다. 아버지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면, 그 자녀도 자비와 사랑을 배워 실천하며 삽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발견하는 하느님은 강자도 아니고, 높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안에 우리가 보는 하느님의 일은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스스로를 내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하느님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벌주는 분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곧 높고 강하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약성서는 하느님을 **자비로우신 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1요한 4,10)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성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한 그만큼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사랑을 취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생각한 나머지, 대가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이해타산적인 우리의 사랑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워야 하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마중물

구겨진 100만원자리 수표



명강사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강사는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0만원자리 수표 한 장을 높이 쳐들고 말했습니다. “어디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100만원자리 수표를 손으로 마구 구겼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수표를 갖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강사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강사는 100만원자리 수표를 땅바닥에 던지더니 구두발로 밟으며 더럽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돈을 갖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또다시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강사는 힘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만원자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꺾게 되는 그 아픔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허나 놀라운 사실은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수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것은 별로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먼저보다 더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치프리아누스

1. 생애

치프리아누스는 테르툴리아누스에 이어 제2대 아프리카 교부이다. 그는 200-210년경 카르타고의 유복한 이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수사학과 웅변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246년에 가톨릭 신앙에 귀의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사제품을 받았으며, 249년 초에는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다. 258년에 순교하기까지 약 10년간의 주교생활은 험난하였지만, 교회사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만한 공적을 남겼다.

그가 주교품에 오르자, 내심 경쟁자였다던 노바투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노사제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주교로 서품된지 1년도 못되어 테치우스 황제의 혹독한 박해를 겪었으며, 박해가 끝나자 카르타고 교회는 배교자들의 처리문제에 대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는 배교자들이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오에 상응한 공식적인 참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부제를 중심으로 모인 반대자들은 배교자들을 쉽게 교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교에게 정면으로 대적하였고, 여기에 주교 선출 당시 경쟁자였던 노바투스가 가담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로마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치프리아누스는 로마의 코르넬리우스 교황과 보조를 맞추면서 반대자들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251년에 열린 카르타고 주교회의에서 치프리아누스의 주장을 공인함으로써 해결되었다. 252년 아프리카 지역에 흑심한 페스트 전염병이 발생하자, 교회는 새로운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 때문에 하늘이 분노하여 전염병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치프리아누스는 저서들을 통해 이러한 낭설을 반박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